

## 2018년 6월 9일 "(성경의 큰 숲 보기 14) 열왕기서: 왕국의 분열"(왕상 12:16-19)

### <도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1차)성취를 다윗 때에 누렸습니다. 땅, 많은 백성, 축복... 솔로몬까지 이어가고, 이후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BC922년). 그후, 북 이스라엘 (10 지파)은 BC722년에 앗시리아에 의해, 남 유다(2 지파)는 BC586에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합니다.

열왕기서(상하)는 분열왕국 왕들에 대한 기록인데 이것이 어떤 영적 교훈을 주는지를 살피겠습니다.

### [1] 열왕기서의 두 초점

(1) 왕들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열왕기서 최종본은 바벨로니아 포로기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혼동과 의문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창조주이며 구원주 여호와께서 다윗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고 솔로몬에게는 성전도 허락하셔서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약속하셨는데, 성전이 파괴 되고 포로로 잡히고 주권이 박탈당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과거를 성찰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됨과 왕 됨의 소명을 지켜내지 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주 설교에서 보았던 다윗의 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각 왕의 행적을 언급하고, 종종 대조되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윗과 같이...' vs. '여로보암의 죄를 좇아...'

북 이스라엘 왕조(9 왕조, 19 왕)에는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없습니다. 남 유다에는 다윗처럼 칭찬받은 왕이 소수 있습니다: 아사, 히스기야, 요시아 등.. 왕들 대부분은 왕직에 불충했습니다(다음 단원).

(2)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활동/역할이 부각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선지적 관점을 떠나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왕들과 함께 출현하는 것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엘리야는 아합의 비도덕성, 권력 남용 등보다 우상숭배와 싸웁니다. 우상숭배가 강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백성의 진실성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여호와 종교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혼합주의(syncretism)가 성행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도덕성의 프리즘으로 해석하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관점을 탈피해야 현대인들이 '우상숭배'에 관한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 [2] 분열의 시작

본문: 르호보암(솔로몬의 아들)이 많은 노역과 세금을 부과하자 여로보암(재야인물)이 백성의 무거운 멍에를 덜어 달라고 탄원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여로보암을 쫓았고,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항할 국가를 세웁니다(북이스라엘).

그런데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언제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베엘과 단에 두고, '출애굽 신이 여기에 계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도록 임의로 산당도 만들고, 일반인 중에서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이것을 보면, 정치적/도덕적으로는 르호보암이 더 나쁘지만 열왕기서는 여로보암의 행동을 후대 왕들의 악행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 여로보암의 죄가 심각한 해악이 될까요?

### [3] 우상숭배는 왜 큰 문제일까?

우상숭배는 세속화의 표방이며, 세속화는 욕망의 거대한 문화적 체계입니다. 욕망에 빠지면 결국 집착에 붙들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비도덕적 행동/말은 주변에 끼친 해악이 종종 명확해서 양심을 찢러 회개 가능성이 합니다. 그러나 세속화는 입으로는 나쁘고, 세상이 큰 일 났다 하면서도 회개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상숭배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12:26-27 에서 여로보암은 자기가 살아남고자 파위를 이용하여 우상숭배의 물결을 일으킵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편안함과 거짓 안정을 주었습니다. 적대적인 지역으로 제사를 위해 가지 않아도 되고(편안함),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신다고 하여(거짓 안정감) 육적 심리적 편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서로가 기만하여 결과적으로 속 사람을 찾지도, 돌보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또한 삶의 본질과 깊은 진실)을 찾지도 못하게 막습니다. 우상숭배의 속성입니다.

욕망을 향한 집착적 행보가 비도덕적 죄보다 나쁜 이유는, (1) 참 행복을 속이고 (2) 주변에 욕망과 성취에 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3) 그럼으로써 삶의 중심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못 보게 하고, 진리로 사는 새 삶에 대한 소망을 차단하므로, 행동이 악한 것이 아니라 행태의 본질과 속성이 악한 것입니다.

드라마 스카이 캐슬. 고액 과외/코디가 비도덕적 행동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 정보 교환하며 상부상조하면서 뭐가 나쁘냐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주장입니다.

21 세기의 우상은 돈, 자식성공, 자기 이름, 재미/쾌락/기분전환 등에 휘둘리지만 잘못된 것이 없다고 믿으면서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속화 물결 속에서 어떤 것도 집착/사랑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괜찮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안 틀렸다고 맞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고 안 틀린 것 속에 거짓과 속임이 있고, 삶의 중심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맺음>**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고, 패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을 뜨면 이 패망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영적 능력이 회복되도록 말씀에 깨어나시고, 주님을 향해 간절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귀하게 여겨주세요. 모두에게 이 영적 교훈의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위 글을 읽으면서 우상숭배의 특징과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2. 나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또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